

제주도 중산간 부락민의 契集團 참여와 사회적 유대*

金 錫 俊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조사지역의 주요 특징 개관 |
| II.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 1. 예비적 논의 |
| III. 조사 및 분석방법 | 2. 부락별 주요 특징 |
| 1. 계집단 참여도의 측정 | 3. 부락별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성격 |
| 2. 사회적 유대수준의 측정 | V. 조사결과의 분석 |
| 3. 조사진행과정 | VI. 결 론 |

I. 서 론

사람들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해야할 일이 있을 때 관심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에서 이런 공동관심의 추구는 곧잘 契의 형식을 통한 집단형성으로 나타난다.

계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자생집단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대표적 집단이다. 계는 "...지역사회 내부에 존재하면서, 어떠한 이해 또는 諸利害群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 조직된 하나의 집단 즉 기능집단(association)의 일종"¹⁾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목적과 기능

* 본 연구는 「濟州新聞」 창간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제주도 연구회 제1차 전국학술대회(1985. 11. 15~16)」의 발표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 崔在錫, "契集團 研究의 成果와 課題: 그 集團의 性格과 機能을 中心으로", 「金戴元 博士 回甲紀念論叢」 서울, 乙酉文化社, 1969. p. 592; 그러나, 계의 성원범위가 특정 지역사회(촌락)의 소속 성원만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너무 협소한 개념화라고 본다. 이점 다음 글을 참조할것, 김필동, "契연구의 성과와 반성, 재정향: '契'의 사회사적 연구를 위하여", 「韓國社會學研究」 8집.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1985. pp. 93~97.

* 社會科學大學 專任講師

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종류가 있다.²⁾

일반적인 수준에서 계를 구성하게 되는 목적을 크게 둘로 나누자면, 表出的(expressive)인 것—인간관계의 유지와 친목도모를 위한 계—과 도구적(instrumental)인 것—殖利나 영리 또는 公益을 위한 계—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³⁾

그런데, 1977년의 한 연구는 이 점에서 괄목할 만한 농촌계의 변화를 보여준다.⁴⁾ 즉 10년 전(1966년)과 마찬가지로 농촌계는 친목(표출성)과 공제(도구성)를 겸한 것으로 운영되면서 부락당 4·4개의 계가 6·6개로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대체로 단순한 친목위주의 계가 늘어났으며, 계의 경제적 성격, 즉 도구적 성격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농촌계의 기능은 농촌사회의 구조변동과 함께 변화해가고 있으며, 그 변화는 도구적 성격의 상대적 약화와 부락민들의 결속이나 유대강화를 위한 친목중심계의 증가로 방향잡혀진 것 같다는 것이다.

요컨대 계의 표출적 성격의 부각이 지금의 변화 추세인 셈이다. 물론 이것은 계가 사회적 관계맺음의 場으로서 이전부터도 역할이 컸었지만, 농촌지역에서 새삼스럽게 더 중요시 됨을 뜻한다. 아마도 이런 변화는 부분적으로 한국사회가 경험해온 산업화·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나타난 離村과 離農 그리고 농촌사회의 해체위기에 대한 반작용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본다면, 표출적 성격이 강조된 농촌계의 숫적 증가는 부락내에 계의 “重層化”를 가져와 인간관계의 網을 서로 겹치게 만들어서, 부락의 여러가지—특히 문중세력간의—사회적 균열을 억제하는 안전판이 되고, 부락사회의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일견 타당할지 모른다.⁵⁾ 그러나, 계의 구성자체가 경제적 계층성과 사회적 친소관계의 복합적 영향에 의한 것이어서 부락내의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그어주는 사회적 격리의 한 機制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 2) 계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논의중 '60년대 이전의 것은, 崔在錫, op. cit., pp.595~599: 80년대의 업적은, 김필동, op. cit., pp.84~92. : 제주도의 계에 관해서는, 진성기, “제주도민의 생활과 계(契)”, 「文化人類學」 7집, 韓國文化人類學會, 1975, pp.79~83.
- 3) 물론 대부분의 계는 이 두가지 목적의 성격을 동시에 띠며,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 현실적이나, 분석적으로는 이런 분류도 가능하다고 본다. 이때 표출적 계와 도구적 계로의 구분은 自發的 結社體(voluntary association)의 분류도식을 援用한 것이다. cf. 金錫俊, “自發的 結社體 理論을 韓國社會에 適用하기 위한 豫備的 試圖: 自發的 結社體 分類圖式的 提案”, 「社會發展研究」, 創刊號, 濟州大學校 社會科學大學 社會發展研究所, 1985, pp.323~343: 이 논문에서 필자는 계의 연구에 자발적 결사체 연구 결과들을 수용할 필요성을 논의했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 견해는 계속 유지된다.
- 4) 姜昌奎, “農村發展과 農村契의 變貌에 關한 研究”, 「農業政策研究」 4권, 1977. pp.5~28: 그러나 이 연구에서 계의 수를 측정할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제집단 참여척도에 대한 논의(3장, 1절)를 참조할 것.
- 5) 이런 견해의 대표적인 연구는, 伊藤亞人, “契조직에 보이는 ‘親한 사이’의 분석”, 崔吉城 編譯, 「韓國社會와 宗教: 일본인에 의한 사회인류학적 연구」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2, pp.31~61. : 그외 이와 유사한 논의들, 梁會水, 「韓國農村的 村落構造」 高大亞細亞細亞研究所, 1967: 李萬甲, “傳統的 協同과 村落社會의 發展”, 「韓國의 社會와 文化」 3집,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p.5~42: Shima, Mutsuhiko. *Kinship and Economic Organization in a Korean Village*.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1979.

우려 역시 무시하기 힘들다.⁶⁾

그러므로, 이와 같이 농촌사회내의 인간관계 형성과 관련지어 계의 역할규정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하는 문제는 충분한 관심사가 될 만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제주도 중산간 부락민들의 契集團에 대한 참여와 부락내 사회적 유대 사이에 드러나는 관련성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자료가 원래 다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⁷⁾ 즉 처음부터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간의 관련성을 추적하기 위해 연구설계를 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연구의 일부분으로 하는 다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자료분석을 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serendipity)'⁸⁾ 관계에 이끌려 시도된 것이 본 연구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나름의 제약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수집한 자료 속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시킬 수 있는 것들만을 임의추출해서 제한된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본 연구가 다루는 주제에 관해서라면 이 '우연적 발견'의 의미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그런 까닭에 본 연구는 하나의 문제제기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금의 논의에 임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

농촌부락민들의 계집단 참여와 부락내 사회적 유대에 관한 논의를 전개시키는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대조적인 두 가지 견해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伊藤亞人の 관찰처럼 계집단 참여가 활발하면 부락내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고,⁹⁾ 다른 하나는 계집단에의 참여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경계의 의미를 지니고 부락민들을 특정 범주에 따라 분리시킴을 뜻한다는 崔恩英과 같은 의견이다.¹⁰⁾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 두 연구자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제를 보다 뚜렷이 윤곽 잡을 수 있을 것이다.

伊藤은 전남 珍島에서 행한 현지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가 한국의 촌락사회에서 門中組織

6) 이 견해에 대해서는, 崔恩英, "韓國農村社會의 社會經濟的 構造와 契: 경기도 여주군 한 마을의 사례," 「人類學論集」 7집, 서울대학교 人類學研究會, 1984. pp.258~310.

7) 원래의 연구란 제주도청의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지원에 의한 다음의 것을 말한다. 夫萬根外, "濟州道 中山間 遊休土地의 開發·活用方向," 「地域發展의 方向과 課題」, 濟州대학교 社會發展研究所, 1985. pp.1~170.

8) Merton, R. K., "The Bearing of Empirical Research on Sociological Theory," i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enl. ed. (New York: The Free Press, 1968). pp.157~162.

9) 伊藤亞人, op. cit..

10) 崔恩英, op. cit..

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조직화 하는 중요한 場이 됨을 밝힌다.¹¹⁾ 그는 한국 촌락사회의 중심적 構造原理중의 하나는 ‘친한 사이’라는 인간관계의 유형이며 또 다른 구조원리는 ‘가까운 사이’의 인간관계 유형이라고 논하고, 계는 전자의 원리를, 문중조직은 후자를 바탕으로 성립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가까운 사이’와 ‘친한 사이’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가까운 사이’가, 친족 특히 문중에 소속함을 전제로 서열화된 공식적 구조에 근거하는 귀속적 지위 (ascribed status)에 따라 행동을 규정짓는 것인데 비해 ‘친한 사이’는 친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비공식적 인간관계를 가능케 하며 개인의 획득적(achieved)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즉 ‘가까운 사이’가 인간관계의 수직적 구조와 관련하는 것이라면, ‘친한 사이’는 수평적 구조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문중을 유력한 질서의 원리로 삼는 촌락사회에서 문중의 구속력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문중에 까지 달성되는 개인적 관계이자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 계는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성원들 사이의 호혜평등의 철저한 계약관계를 기반으로 ‘친한 사이’들끼리 조직되는 것이 일반적이면서, 이에 대한 참여는 개인을 중심으로한 인간관계에 기초하고 당사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은 자신을 중심으로한 ‘친한 사이’의 網에 따라 여러 개의 계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중복적인 계집단 참여가 있게되면 촌락사회에서 나타남직한 문중간의 이해대립이나 감정적인 균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며, 계의 호혜평등원리는 특정 개인의 이기적 야심이나 파벌형성을 저지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안전판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伊藤의 견해는 촌락사회내에 계집단내의 중복적 참여-계집단내의 참여도가 높다는 것이-부락내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기할 수 있게 한다는 표현으로 요약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崔恩英은 伊藤의 연구가, “한국사회를 논할 때 흔히 유교적, 혈연적 요소만을 강조하기 쉬웠던 경향에 대해 이와는 다른 요소를 드러냄으로써 전자의 편협함을 피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지나치게 형식적 二元主義에 빠졌다”고 평가하고, “계가 현실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갖는 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때 “계의 진정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¹²⁾

그러면서 崔는 한국농촌사회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구조의 대강을 논의한 후에 경기도 여주군의 한 마을을 사례조사하여 계의 사회적 의미를 밝혀본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崔의 관찰에서 주목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외지로 부터 유입한 인구를 ‘떠들이’라고 부르면서 ‘토박이’와 대비시킨다는 사회경제적 범주를 확인한 점이다. 단순히 말하면, 마을에 들어와 오래된 집안의 사람일수록 ‘토박이’고 들어온 지 얼마 안되는 사람일수록 ‘떠들이’라 하겠는데, 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토박이’라고 해서 반드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나, ‘떠들이’에 대해서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위세의 결여라는 뉘앙스가 함께 붙어다닌다는

11) 伊藤의 연구는 鈴木榮太郎의 ‘契集團’과 ‘契方式(契法 또는 契制)’을 구분하는 독특한 관점에 의존한 바 크다. cf. 김필동, op. cit., pp. 74~76.

12) 崔恩英, op. cit., p. 263.

것이다. 즉 ‘떠돌이’는 주로 토지가 없고 일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경멸적 호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경제적 범주가 지닌 의미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사회적 신용의 지표로 반영되어, ‘토박이’는 일단 믿을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부류로 생각되는 반면 ‘떠돌이’는 쉽게 믿을 수 없고 기꺼이 사귄만한 부류가 못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데 있다. 그 결과 (면범위)친목계나 비교적 장기간 유지해야 성립하는 혼상갑계와 쌀계의 구성은 물론이고 비교적 단기간 지속되는 돈계에서조차 그러한 범주를 적용해서 성원범위를 제한시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崔의 연구는 계집단에의 참여 그 자체로서 마을내에 사회경제적 범주에 따른 구획이 그어질 수 있고, 이것이 인간관계 형성의 경계가 되며 일종의 사회적 격리의 징후를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하게 해준다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요컨대 崔의 연구는 특정부락내에 계집단에의 참여가 높다는 것만으로 부락내 사회적 유대가 강할 것이라거나 그런 높은 참여율이 부락 사회의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소박한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한다.

결국, 지금까지 대비시켜본 두 견해는 계집단 참여가 농촌사회의 인간관계의 형성과 관련시킬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볼 것을 요청하는 논쟁이었다고 할 만하다. 이 후에서 전개하는 본 연구의 내용은 이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풀이를 위해 구성될 것이다.

그러나, 풀이하는 과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즉 계집단 참여와 부락내 사회적 유대의 관계에 해당 부락이 지닌 생태학적 내지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 질문은 伊藤과 崔의 연구가 모두 특정 부락을 사례조사해서 얻은 것이어서 혹시 각각의 조사부락들이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엇갈린 결론에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요구된다. 伊藤의 조사부락은 崔의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중조직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대상부락들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것이 계집단 참여와 부락내 사회적 유대와 맺는 관련성을 일차적으로 고찰하게 될 것이다.

Ⅲ. 조사 및 분석방법

여기서는 여러가지 사항이 포함된 원래의 조사표 중에서, 계집단에 대한 참여 정도의 측정과 부락내 사회적 유대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마련된 도구들만을 일별하고, 조사의 진행과정에 관해 약술해 보겠다.¹³⁾

13) 본래의 조사표는 사회경제적 배경, 농업경영방식,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상의 필요에 따라 여기서 설명하지 못하는 문항들도 뽑아쓰게 될 것이다.

1. 계집단 참여도의 측정

계집단 참여도는 응답자 개인이 직접 모임에 참석하는 계의 숫자를 측정할 수 있게 작성된尺度에 의존해서 산출하였다. 이 척도는 계의 성원자격(membership)이 가구주인지 개별 가족성원인지 구분이 모호한 사례가 많아서, 응답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구주가 참여하는 계집단의 수를 의미하는지 당사자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지 혼돈스러워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계의 성원자격에 상관없이 실제로 모임에 주로 참석하는 사람을 위주로 측정하므로써 정확을 기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계의 형태와 종류가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코드화할 때는 친목계, 영리·이식계, 공익·부조계의 셋으로 나누어 보았으나, 분석과정에서는 각 유형의 계집단에 대한 참여도를 개인별로 모두 합산처리하였다. 왜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계나 다 친목적(표출적) 성격이 있는 까닭에¹⁴⁾ 합산한다 해서 본 연구의 수행에 큰 장애가 안될 뿐더러, 소규모 標集으로 인해 적정 비교수준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까지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쨌든 본 연구가 측정한 계집단 참여도는 일단 모든 계에 표출적 성격이 있다고 가정한다는 조건아래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성원범위가 부락내인 계와 부락외부까지 연결된 계가 구분되지 않고 기왕에 모두 함께 측정되어버렸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락외부와 연결된 계는 현실적으로 소수라고 생각되며¹⁵⁾ 설령 성원범위에 의한 이런 방식의 분류가 어떤 의미를 지닌다 해도 본 연구의 분석과정으로 보자면 크게 염려할 바는 없다고 여겨진다.¹⁶⁾

2. 사회적 유대 수준의 측정

사회적 유대 수준의 측정은 Fessler가 제시한 '地域社會紐帶指數(Community Solidarity Index: CSI)'를 원용해서 작성된 '地域社會評價尺度'에 의존하였다.¹⁷⁾ Fessler의 'CSI'는 40개 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사회평가척도'는 그 가운데 조사대상지역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본 9개 문항을 뽑아 4점 척도로 재구성한 것이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문항들이다.

'이 마을에서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

'이 마을사람들은 마을을 위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한다.'

14) 伊藤亞人, op. cit., p.54.

15) 이에 관해서는 idid., pp.49~54에 있는 '친한사이'의 범위와, 崔恩英, op. cit., pp.304~306의 면범위친목계 논의, 그리고 김필동, op. cit., pp.92~97의 계연구의 再定向에 관한 제안을 비교 참조바람.

16) 5장 조사결과의 분석 가운데 既成-限界 두 집단의 속성에 대한 해석을 참조.

17) Fessler, D. R., "The Development of a Scale for Measuring Community Solidarity", *Rural Sociology* V.17, 1952, pp.144~152.

‘이 마을 유지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마을 일을 처리한다.’

이런 문항들로 구성된 ‘지역사회평가척도’를 信賴度檢證한 결과 $\alpha = 0.76908$ 로서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원래 Fessler는 자신의 ‘CSI’를 가지고 농촌지역사회 성원들이 그 지역사회내의 制度化된 行爲領域(the area of institutionalized behaviors)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와 그런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성원들간에 얼마만큼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측정해 보았다.¹⁸⁾ 유의할 것은 Fessler가 채택한 분석방법이 독특하다는 점이다.

그는 ‘CSI’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점수를 지역사회별로 구해 제도화된 행위영역에 대한 평가의 수준을 서로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각 평균점에 따른 표준편차를 지역사회별로 다시 계산해내어 소속성원들이 그 평가를 하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지를 검토한다. 다시 말해, ‘CSI’에 대한 지역사회성원들의 응답점수의 평균이 높은 지역사회는 타지역사회에 비해 자체내의 제도화된 행위영역들이 그 소속성원들이 판단하기에 良質의 것이 됨을 말해 준다. 그리고 이 때 그 평균점에 따른 표준편차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면, 그 지역사회성원들이 자신이 소속한 지역사회의 제도화된 행위영역에 대한 평가를 균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편차의 수치가 작을수록 합의의 동질화 정도가 높고, 이 경우에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적 유대수준도 높다고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척도에서 얻어지는 평균점과 표준편차의 수치는 서로 否的 相關關係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지역사회평가척도’에서는 이런 Fessler의 분석방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단지 응답결과의 평균점에만 관심을 가졌다. 그것은 Fessler가 평균점(평가의 수준)과 표준편차(사회적 유대의 수준)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해놓은 바 있으므로, 이 결과를 액면대로 받아들인다면 평균점만 가지고서도 사회적 유대의 수준까지 능히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추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단 ‘지역사회평가척도’의 평균점에 Fessler가 의도한 두 측면이 다 함축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3. 조사진행과정¹⁹⁾

본 연구의 자료는 해발 200~600고지에 위치한 제주도 중산간 부락을 중심으로 '85년 여름동

18) Fessler의 40개 문항은 지역사회의 제도화된 행위영역들을 8개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5개 문항씩 할당시켜 얻은 것이다. 이때 8개의 영역은, ①공동체 의식(community spirit), ②대인관계, ③지역 사회에 대한 가족의 의무 수행(family responsibility toward the community), ④학교, ⑤교회, ⑥경제활동, ⑦지방관서(local government), ⑧긴장 영역(tension area) 등이다. idid., p. 145: 본 연구의 척도 구성에서는 조사지역에 공통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④, ⑤의 영역을 제외시켰다.

19) 세부적인 조사진행과정에 대해서는, 夫萬根外, op. cit., pp. 94~95를 볼것.

안에 실시한 조사활동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²¹⁾ 조사는 5개 중산간 부락의 예비조사를 거친 후 3개의 부락을 재선정하여 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본조사의 대상부락은 조천읍 Y리, 표선면 S리(G동)와 안덕면 D리(M동)이며, 조사대상자는 각 부락의 만 20세 이상 남녀로 국한시켰고 가능한 가구주는 전수조사하도록 했고 가구주 부재시에는 그 가구의 형편을 잘 아는 가구원과 대신 면접하였다. 조사결과 총 210명이 면접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고, 편집과정을 거쳐 205매의 조사표를 분석가능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IV. 조사지역의 주요 특징 개관

본장의 1절에서는 본 연구와 유관한 것에 한정시켜 제주도 중산간 부락들의 대체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해설을 간략히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조사대상지역의 주요 특징들을 개관하는 데 할애할 것이다.

1. 예비적 논의²¹⁾

조선시대에는 왜구의 잦은 해안약탈을 피해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 꽤 많은 취락이 형성되었다. 조선조 때의 제주도 두 縣중의 하나인 旌義縣도 왜구에 대한 방비를 위해 중산간 내륙쪽으로 위치를 옮겨(1422년) 지금의 표선면 성읍1리에 자리잡고 일제 초까지 계속 유지된 적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산간부락들은 設村歷史도 오랜 편이고, 동족부락적인 곳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치하인 1917년에 一周道路가 개설되는 등, 해안지대의 취락형성과 거주가 용이해지면서 차츰 인구가 감소하다가, 해방 후 1948년의 '4·3사건'의 발생으로 거의 모든 중산간부락들이 폐허화하는 대전환기를 경험하고 만다.

'4·3사건'이 발생하자 중산간지대의 주민들은 해안지대로 피신해버리고 이런 사정은 1960년대 초에 가서야 비로소 변하기 시작한다. 1950년 초엽의 복구계획은 6·25의 발발로 중단되버리고, 1962~63년의 '4·3폭동 이재민 귀농정착 사업'의 실시가 시발점이 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총 1,616가구 8,100명이 중산간부락으로 복귀하면서 황폐해진 농경지 개간을 위한 지원도 있게 된다. 이 때부터 중산간지대의 개발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교통·용수·통신·산업

20) 중산간 부락을 해발 200~600고지의 자연부락으로 정의한 것은, 石宙明, 「濟州島 隨筆: 濟州島의 自然과 人文」 濟州島叢書4, 서울, 寶晉齋, 1968. p.10에 근거한 것임. 그는 제주도를 토지이용에 따라, ①삼림시대, 600m이상, ②산간지대, 300이상, ③중간지대, 200이상, ④해안지대, 200m이하로 구획짓는데, 여기서 ②, ③을 합친 200~600m 고지에 있는 지대를 중산간지대로 생각할 수 있다.

21) 본 절의 논의 중 史的 考察은 주로 다음의 문헌들에 의존했다. 특별히 밝혀 둘 필요가 없는 한 세세한 각주는 생략한다: 夫萬根外, op. cit., pp.1~170: 濟州道, 「濟州道誌(上·下)」 1982: 石宙明, op. cit., 濟南新聞, 1978. 8. 31~1980. 6. 16까지 연재된 「濟州의 鄉史.」

개발과 함께 主畜團地·양잠단지 조성을 포함한 취락형성사업의 꾸준한 추진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의 중산간부락들은 이상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락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원래의 주민과 새로 이주해 들어간 사람들이 서로 뒤섞여 살아야 하는 데서 일종의 사회적 충격을 맛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산간부락들에는, 설촌역사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성의 다양성과 이질성에서 오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든 내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한편, '60년대 초부터 전개된 중산간지대 개발사업은 이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변화를 겪게 한다.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안겨준 갖가지 혜택이 그 변화의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개발사업에 편승한 개인 또는 부락공동소유지에 대한 외지인들의 합법·비합법적 토지매입의 증가가 변화의 이면을 구성한다.

여기서 부락공동소유지라면 대개 제주도에 전래하는 부락공동목장을 일컫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락공동목장은 한라산 목장지대에 대한 국가관리의 소홀과 국유제의 실질적 폐지가 일어난 구한말 때부터 설치되기 시작했다고 한다.²²⁾ 그 후 해안지대에서 백록담 부근까지 부락의 능력에 맞게 공동목장지가 나누어 지고, 여기에 해당 부락민들은 마소를 방목하면서 서로 돌아가며 관리하는 상호부조적 협업의 관행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²³⁾ 그러므로, 이 공동목장은 부락민 전체의 생계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부락민 공통의 이해관심이 모여지는 場임과 동시에, 협업적 상호부조적 운영과정이 부락민 공동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데서 부락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유대를 조정·강화하는 마당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61년에 와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발동으로 상당 수의 공동목장이 부락 공유지에서 시군의 소유로 넘어가거나, 부락유지 몇 명의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서 사정이 변하기 시작한다. 실질적 소유자는 부락민 전체이지만, 명의상의 명목적 소유자는 일부 부락주민이거나 시군으로 바뀌게 되어, 소유권의 모순된 二重性이 출현하고 분쟁의 씨앗이 곳곳에 심겨진 것이다.

이러다가 1968년 부터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의 추진과 함께 團地化하거나 축산기업농에게 원래의 공동목장지가 일부 불하되기도 하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이 거론될 시기에 와서는 때를 맞춘 합법·비합법의 투기성 토지매입이 급증하면서²⁴⁾ 적지 않은 공동목장이 그 와중에 직·간

22) 강남규, “제주도 토지 투기 실태”, 「현장」 3집, 서울, 돌베개, pp.170~173.

23) 일제하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里單位 공동목장조합을 112개소나 개설하여 軍馬와 육축우를 위한 축산개발에 임한 적이 있었다. 濟州島廳, 「濟州島勢要覽」 1939. pp.80~89.

24) 다음의 기사들이 특히 불만하다. “도내 개발가능한 야초지중 60% 이상이 외지인 소유이며, …… 200고지 이상 중산간지대에는 총 2,400ha의 야초지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60%인 1,420ha가 서울·부산등지의 69명에게 넘어 갔다.”, 濟州新聞, 1983.1.7: 이런 사정은 더욱 악화되어, “…濟州道에 따르면, 현재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의 토지(야초지)는 3,628ha(소유자 208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중 905ha만 초지 등으로 개발됐을 뿐 나머지 75%인 2,723ha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濟州新聞, 1985.8.28.

접으로 휩쓸리고만다.²⁵⁾

이 과정에서 일부 부락공동목장들은 주민들의 합의 또는 명의상 소유자인 소수 부락주민들의 이해에 얽혀 부분적으로 매각되거나 해체당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시군이나 기타의 새로운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임차해서 공동목장의 명맥을 유지하는 곳도 있게 된 것이다.

어쨌든 현재의 중산간부락에 부락소유의 공동목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소유권의 모순된 이중성과 투기의 대상으로 말미암은 긴장과 갈등의 의미를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문제점을 잘 극복하여 적절한 공동목장 운영을 한다면 별 염려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바엔 공동목장을 기왕에 해체해버려거나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락이 오히려 갈등의 한 가지 발생 근원을 제거해버린 셈이 되지 않겠느냐는 역설적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²⁶⁾

2. 부락별 주요 특징

가) 안덕면 D리 M동

해발 300고지에 위치한 M동은 행정부락인 D리의 두 자연부락 중 하나로서 조사당시 인구 약 210명에 가구수가 50호였다. M동은 소수의 영세농을 빼고는 거의 모든 가구가 축산을 주로하는 농업경영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락의 주민들은 목초지를 될 수 있으면 확장시키려 하고, 개인초지는 물론 공동목장의 존재가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했으며, 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관심도 비교적 높은 듯하였다.

M동의 공동목장은 약 200ha로 부락공동명의로 아니라 개인명의로 나누어 등기되어 있지만, 공동출자에 의한 조합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거의 전가구가 소를 키우고 있어서 마을 전체가 다 조합원이나 다름이 없었다. 공동목장의 관리는 별도의 관리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목장의 위치가 부락에서 가까운 까닭에 조합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돌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부락전체 주민인 반면 명의상의 소유자는 일부 부락주민이라는 데서 부락민들간에 갈등의 소지가 잠재해 있었으며, 이런 분위기에는 바로 인근의 타부락(안덕면 C리)에서 발생한 공동목장분쟁도 다소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다. 즉 공동목장이 자치적·협업적으로 운영되고 그에 관한 주민들의 이해관심은 높지만 다른 한편 소유권의 모순된 이중성 때문에 묘한 긴장상태를 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5) 중산간 부락들중 공동목장토지 분쟁으로 곤경에 처했던 곳 몇을 예거하면,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북제주군 구좌면 서김녕리와 월정리 등이다. 강남규, op. cit., pp.161~193참조.

26) 그러나 중산간 부락민들의 삶에 있어서 공동목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야 한다. 이점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본 연구의 모체가 되는 다른 작업에 참여하면서 분명히 해두었다. 夫萬根外, op. cit., pp.91~120을 볼 것.

〈표-1〉 조사부락별 특징비교

부락명		M 동	G 동	Y 리
비교항목	구	210(명)	150	320
인	구	210(명)	150	320
주 소 득 원		축 산	축 산, 田作, 농업노동	과수, 田作
공 동 목 장		있음(자체보유)	있음(군유지임대)	없음(해체)

나) 표선면 S리 G동

인구 약 150명에 35호인 G동은 해발 약 220고지에 자리잡고 있으며, S리의 3개 자연부락 중 하나이다. 다른 2개 자연부락이 3~5가구 뿐인 폐촌지경이라서 G동이 실질적인 행정부락단위라 할 수 있다.

G동의 농업경영방식은 인근에 대규모 기업목장들이 다수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정확히 파악하긴 힘들다, 이장의 말을 빌리면 부락내 가구의 절반 가량이 기업목장에 품팔이를 해서 그 노임으로 가계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른바 농업노동자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노동력 제공이 유리한 젊은 층이 다른 중산간부락들 보다 인구분포상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특색을 보이고, 타지출신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²⁷⁾ 하지만, G동 주민이 완전히 농업노동자화한 것은 아니고, 소를 같이 키우는 농가도 다수이며, 밭 작물에 의존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한다.

G동의 공동목장은 앞의 M동과는 달리 郡有地인 야산을 임차한 것으로 면적이 약 450ha쯤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개량초지는 45ha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임야지여서 축산에 그리 효율적이지는 못한 것 같았다. 공동목장조합에 가입한 가구는 27호로서 전체가구의 약 77%가 참여하고 있었고, 부락민 중에서 관리인을 선정하여 -대개 타지역에서 전입한 자-목장을 유급관리하는 것도 M동과 대조된다.

요컨대 G동은 주변에 대규모 기업목장들이 다수 들어서 있어서 농업노동자화가 많이 진척되었다는 점과 공동목장이 자체 소유가 아니고, 따라서 그에 관한 이해관심도 M동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이 부락의 주 특징이라고 하겠다.

다) 조천읍 Y리

Y리는 단일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행정부락이다. 인구 300여명에 70호로서 위 M·G동에 비해 규모가 제일 크다.

농업경영방식을 보면 감귤등 과수재배와 밭작물에서 주로 소득을 얻고, 소규모의 축산을 한

27) 이런 상황을 놓고 혹 기업목장을 설치함으로써 고용증대와 소득증대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 점은 더 두고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보며, 이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 중산간부락임에도 과수재배에 비중을 많이 두는 이유는 지형이 盆地라는 점도 있지만 70년대 중반에 마을 공동목장이 해체되어 버린 영향이 더 크다. 그래서 이 부락의 축산농가들은 부근의 개인목장이나 타부락 공동목장에 비싼 入殖料를 지불해서 소를 키우거나 주위의 잡초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Y리의 공동목장은 원래 부락자체의 소유인데도 마을 유지들의 개인명으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화로 70년대 초 제주도 토지투기 붐이 일 때 외지인에게 매각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소유권의 모순된 이중성에서 온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 일로 해서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될 정도로 주민들끼리 분쟁이 컸었지만, 공동목장이 해체된지 오래인 지금은 적어도 표면상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 부락은 이제와서 공동목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M·G동처럼 주민이 공통으로 이해관심을 부여할 장을 한 가지 상실했고 자치적·자발적 협동 조직의 하나를 잃어버린 격이지만, 주민간에 큰 긴장상태를 가져올 수도 있는 공동목장과 관련된 토지문제는 싫든 좋든 없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3. 부락별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성격²⁸⁾

먼저 조사된 각 부락별 가구주들의 전년도('84년) 총수입의 분포를 보면 M동이 비교적 고소득자가 다수이고, Y리가 그 다음이며, G동이 저소득자가 가장 많다(501만원 이상인 가구주는 각각 40.5%, 25.9%, 16.0%). 그러므로 소득수준에 관한한 M동, Y리, G동으로 갈수록 부락세가 열악화한다고 하겠다. G동이 이런 이유는 주민들의 농업노동자화가 많이 진척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본다.

부락별 조사대상자들의 출신지는 G동이 타지출생이 제일 많아 전체의 66.7%이고, 나머지 두 부락은 서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면서(M동, 47.5%; Y리, 43.0%) 현재 거주하는 부락출생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약간 많다. 응답자 전체로 보면 타지출생(49.3%)과 현부락출생(50.7%)이 거의 반반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본 장의 1절에서 보듯 중산간부락의 변천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G동이 유독 타지출생이 다수인 이유는 부락주변의 기업목장에서 농업노동자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입유인으로 작용한 때문이라고 본다.

다시 조사대상자들의 주성장지를 부락별로 살펴보았더니, 결과가 출생지의 그것과 유사했다. 현부락에서의 거주년수에서도 동일했는데, Y리의 응답자들이 평균 32.30년 거주하였고 뒤를 이어 M동 27.70년, G동 21.87년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상의 출생·성장지와 거주년수 분석결과는 부락에 대한 귀속감이나 애착심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관심사인 계집단 참여도와 지역사회평가, 즉 사회적 유대의 수준에 있어서, Y리가 가장 높고 그것은 다시 M동, G동의 순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마저 갖게 한다. 이 결

28) 논의를 간추리기 위해 도표의 제시를 생략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夫萬根外, op. cit., pp.96~107을 참조바람.

과는 흥미있는 분석항목을 한 가지 던져주는 것이라고 본다.

부락별 성별분포는, 전체적으로 여자가 51.2%이고, 남자는 48.8%여서 분포가 여자쪽으로 조금 기울어 있다. 원래 조사대상지역의 성별분포에서 여자가 10여명 많은 것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표집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하겠다.

연령분포에 있어서는 G동의 20~30세층이 46.2%로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표집오차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측된 결과라고 보겠다. 왜냐하면, G동의 경우 농업노동자의 수요가 많아서 젊은 층이 이촌하지 않거나, 심지어 재이입하는 경향마저 보이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은 전체적으로 낮아 국졸이하자가 64.0%, 중졸이 20.7%이고, 15.3%만 고졸이상이었다고, 혼인지위에 있어서는 현재 결혼하여 배우자와 같이 사는 사람이 77.6%, 그렇지 않은 사람, 즉 미혼, 별거, 이혼 또는 사별한 사람이 22.4%였다.

V. 조사결과의 분석

본 연구는 부락민들의 계집단 참여와 부락내 사회적 유대간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견해를 비교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 때 전자는 계집단참여척도를 통해, 후자는 지역사회평가척도에 의해 측정된 후 상호연관시킴으로써 비교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4장에서 고찰한 조사대상지역의 특성을 비교과정에 포함시켜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부락별로 계집단 참여도와 지역사회평가수준을 비교한 것을 <표-2>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 의하면, M동의 참여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G동, Y리의 순서이며, 나중 두 부락은 비슷

<표-2> 부락별 계집단 참여와 지역사회 평가

부락명 비교항목	M 동	G 동	Y 리
1인당평균참여계수	1.3125(개)	0.5641	0.5000
지역사회평가척도평균	16.4125(점)	15.4615	17.4767

한 참여도를 보이는 반면 M동은 그보다 무려 2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F=12.213$, $df=2$, $P<.000$) 일차적으로는 이 결과가 M동만이 공동목장을 자체소유로 하는데 비해, G동은 공유지를 임차해서, 그리고 Y리는 이미 해체되어버렸기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다.²⁹⁾

그런데, 지역사회평가척도의 평균에 있어서는 계집단 참여도가 제일 낮은 Y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M동과 G동이 그 뒤를 잇는다. 물론 이 평가수준의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정됐지만($F=1.764$, $df=2$, $P<.08$), 그렇다고 전혀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참

29) 이런 생각의 근거에 대해서는 *ibid.*, pp.107~111에 자세히 논의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여도와 평가수준간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아서 더 깊은 분석을 요구하는 징조라고 보고 싶기 때문이다.

양자간의 관계는 앞서 논급한 伊藤의 견해와는 달리 일단 계집단 참여도와 사회적 유대간에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해석—가령 생태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해석—이 있어야 함을 뜻한다. 혹은 伊藤이 조사한 부락의 특성(문중조직의 비교적 강한 세력)이 본 연구의 대상 부락에서는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먼저 M동과 G동의 생태학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찰해 보자.

4장에서 본 것처럼 M동은 실질적으로 부락소유의 공동목장이 있지만 G동은 균유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G동의 주민들은 M동 보다 공동목장에 대한 이해관심과 감정적 애착이 덜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G동은 주위가 대규모 기업목장에 둘러싸여 있고 인구구성도 비교적 타지출신이 많으며, 부락민의 소득수준도 낮았다. 이로 미루어 G동은 기업목장의 대규모 운영방식과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되고 부락민의 저소득이 이에 겹쳐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을 유발하며, 인구구성의 다양성이 이질감으로 반영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만하다. 따라서 G동이 M동에 비해 낮은 계집단 참여도와 지역사회평가수준을 보여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곧 G동에 있어서는 부락이 처한 객관적 상황이 부락민 서로에 대한 주관적 평가마저 악화시켜, 긴장된 인간관계와 부락내의 낮은 사회적 유대를 낳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Y리의 경우는 참여도가 G동과 거의 비슷하면서 가장 낮지만 지역사회평가척도상의 평균은 계집단 참여도 1위인 M동 보다는 높은 점이 특이하다. 伊藤의 논의를 따르자면, Y리의 사례는 예상밖의 것이다. 계집단 참여도는 가장 낮는데 지역사회평가수준, 즉 사회적 유대의 수준은 오히려 제일 높은 것이다.

Y리의 조사대상자들은 다른 부락에 비해 Y리에서 출생·성장한 사람이 많고, 거주년수도 가장 오랜 것으로 미루어 이른바 '토박이'들이 비교적 다수이기 때문에 계집단예의 참여도가 높은 텐데도³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점과, 계집단 참여도가 낮다면 伊藤의 예에서 처럼 사회적 유대의 수준도 마찬가지로 여야 하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된 까닭은 아마 Y리의 동족부락적인 기미와 공동목장의 해체라는 상황에 있지 않은가 한다.

조사된 가구주들의 확인 가능한 응답에 의하면, 56명의 Y리 가구주 가운데 濟州 高氏가 8가구, 濟州 梁氏 10가구, 淸州 韓氏 6가구, 기타 하나 또는 두가구인 姓氏가 12가구로 나타난다.

30) 계집단예의 참여를 자발적 결사체에의 참여와 동일맥락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 특정지역에 오래 거주할 수록 그런 집단예의 참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cf. Zimmer, B. G., "Participation of Migrants in Urban Structures", in P. Hatt and A. Reiss, Jr., (eds.) *Cities and Societies: the Revised Reader in Urban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Inc., 1957) pp. 730-738: 그러나 Zimmer의 연구는 도시지역 이주자에 관한 것이고 Y리는 농촌지역이라는 점에 유의할 것.

이것은 다른 두 부락에 비해 훨씬 동족부락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고³¹⁾ 伊藤의 조사 부락과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Y리의 '토박이'적 부락민들은 오히려 계 집단 참여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문중들간의 인간관계 형성으로 부터 지속감과 유대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³²⁾ 동시에 Y리는 공동목장의 해체가 이미 10여년 전에 있었기에 부락민들이 서로의 이해관심에 따라 지금처럼 공동목장을 둘러싸고 나타남직한 갈등-소유의 모순된 이중성과 투기의 대상화에서 오는-을 미리 제거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부락민간에 크게 이해가 엇갈릴 일도, M동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빈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두 부락과 비교할 때 Y리는 계집단 참여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적 유대 수준을 보일 수 있는 것이라고 우선은 생각할 수 있겠고, Y리의 특성으로 미루어 이 결과는 伊藤의 견해에 강한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상의 분석은 계집단 참여도와 부락내 사회적 유대간의 관계에 관한 한 무엇보다 해당 부락들의 생태학적 조건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배경까지 고려해야 함을 암시한다고 본다.

그런데 다음의 <표-3>은 이러한 부락별 분석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들의 성격에 따른 보다 세밀한 분석도 요구됨을 시사한다.<표-3>은 부락별로 계집단 참여도의 각 수준에 따

<표-3> 부락별 계집단 참여도별 지역사회평가

부락명		계집단참여			
		M 동	G 동	Y 리	계
없	음	17.96 (28;35.4%)	15.60 (25;64.1%)	18.02 (54;62.8%)	17.43 (107;52.5%)
	개	15.85 (26;32.9%)	15.29 (7;17.9%)	17.08 (24;27.9%)	16.30 (57;27.9%)
2 개 이 상	개	15.28 (25;31.6%)	15.14 (7;11.9%)	15.00 (8;9.3%)	15.20 (40;19.0%)
	계	16.42 (79;99.9%)	15.46 (39;99.9%)	17.48 (86;100%)	16.68 (204;100%)

* ()안의 수치는 각각 해당조사 대상자의 수와 그 백분율

- 31) G동은 가구주 13명의 姓氏 중 3가구 이상의 성씨가 거의 없고 1~2가구인 성씨들로 구성되며, M동은 가구주 29명중 濟州高氏 4가구, 光山金氏 3가구, 그외 1~2가구인 성씨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그렇게 신뢰할만 한 것이 안된다. 성씨를 확인할 수 있는 가구주의 구성비가 Y리는 전체의 80%인데, G동은 37%, M동은 58%밖에 안되는 것이다.
- 32) 혈연적 관계가 주종을 이루는 농촌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2차집단에의 참여가 그렇게 긴요하지 않다. 따라서 계집단 참여와 '자발적 결사체 참여를 같은 맥락에 놓을 수 있다면, 지금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본다. cf. Wirth, L.,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44. 1938, pp.1~34 및 Guterman, S. S., "In Defense of Wirth's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74. 1969. pp.492~499 : 하지만, 이 해석은 잠정적인 것이며, 뒤에 분석할 기성-한계 두집단의 속성과 비교해 볼 것을 당부한다. 왜냐하면, 이 해석은 Y리에 한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분적이고, 조사된 세부락 주민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토박이'적 성격의 의미가 다소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 지역사회평가척도의 평균점을 제시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표-2>에서 예상한대로 G동은 계집단 참여도의 어떤 수준에서도 M동 보다 평가의 평균점이 낮고 이것은 다시 참여도의 각 수준에 따라 큰 차이없이 고르게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부락내 사회적 유대가 약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Y리는 참여도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수준에서 평가의 평균점이 G동, M동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Y리는 물론이고 M, G동의 어디에서도 참여도와 평가의 평균점이 서로 역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계를 하나도 안든 사람들의 평가의 평균점이 가장 높고(17.43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계에 참여할수록 평가수준은 점차 낮아진다.(각각 16.30과 15.20). 계집단 참여도와 지역사회평가수준의 相關關係를 구해본 결과 역시 $r = -0.1663$, $P < .01$ 로서 상호 否의關係를 드러낸다. 다시 말해 계집단 참여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평가 곧 사회적 유대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에 의하면 伊藤와 같은 주장이 일단 거부되는 셈이 된다. 전혀 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결과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을까? 단순히 계집단 참여가 사회적 유대를 침해하는 갈등적 요소임을 뜻하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요인의 개입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성격과 관련한 분석을 계속해보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원래 목적인 대조적인 두 견해를 검토하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표-4>는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부락에서의 거주년수와 계집단 참여도, 지역사회평가수준을 각각 관련시킨 것이다. 표에 따르면, 부락에 오래 산 사람일수록 계집단 참여도는 높아지는데($F = 4.464$, $df = 2$, $P < .05$), 평가의 평균점은 반대로 낮아진다.

<표-4> 현부락거주기간별 계집단 참여와 지역사회평가

거주년수	10년이하	11 ~ 20년	21년이상
비교항목			
1인당평균참여계수	0.3333(개)	0.8333	0.9675
지역사회평가척도평균	17.9487(점)	16.7857	16.2683

동거가족원수에 따라 계집단 참여도와 평가의 수준을 비교한 <표-5>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는다. 즉, 동거하는 가족원의 수가 많을수록 참여도는 높아지는 반면, 평가의 평균점은 낮아지는 것이다.

<표-5> 동거가족원수별 계집단 참여와 지역사회평가

동거인수	3인이하	4 ~ 5인	6인이상
비교항목			
1인당평균참여계수	0.3968(개)	0.7778	1.2754
지역사회평가척도평균	16.7460(점)	16.8056	16.5942

다시 <표-6>의 주관적 계층평가에 따른 것과 마을회의 참여정도에 의한 <표-7>에 있어서도 결과는 유사하다. 다만 <표-6>의 평가의 평균점에서 上層이 中層보다 약간 높은 것이 다른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난다.

<표-6> 주관적 계층평가별 계집단 참여와 지역사회평가

계 층	상	중	하
비교항목			
1인당평균참여계수	1,3500(개)	1,0095	0,4429
지역사회평가척도평균	16,3000(점)	16,1238	17,5000

<표-7> 마을회의 참여정도별 계집단참여와 지역사회평가

참석여부	참 여	불 참
비교항목		
1인당평균참여계수	1,0882(개)	0,5895
지역사회평가척도평균	15,7745(점)	17,4316

이상의 <표-4>에서 <표-7>의 결과를 정리하면, ① 현재의 부락에 장기간 거주하여 부락의 사정을 잘 알고 기왕의 利害도 많거나, ② 상층의 계층에 속하여 부락의 대소사에 영향력 행사가 쉽다든가, ③ 동거가족원수가 많아 人的 資源이 풍부하고, 다양한 인간관계의 網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하든지, ④ 마을회의에 참여하면서 부락민간의 관계 맺음이 양호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계집단 참여도는 높은데, 부락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반면 이런 배경이나 성향을 지니지 못할수록 계집단 참여도는 낮은데 부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에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 부락내에서 상층에 속하고 오랫동안 거주하여 안정된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既成의 集團(established group)'이라 명명할 수 있겠고 후자는 그 반대로 거주기간이 짧고, 하층에 속하여 자신의 부락내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限界的 集團(marginal group)'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것은 마치 崔恩英이 확인했던 '토박이'와 '떠돌이'라는 사회경제적 범주를 보는 것과 같다. 다르다면, 崔가 확인한 것은 조사대상자들로부터 직접 얻어진 범주인데 비해 지금의 것은 간접적인 추리를 통해 구성되었다는 차이라고 하겠다.

어쨌든, 이런 방식에 의해 사회경제적 배경을 따라 기성-한계의 두 집단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면, 계집단에의 참여가 활발하다해서 곧장 해당부락의 사회적 유대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보다, 계집단 참여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경계와 분리의 의미를 지닌다는 주장에 더 동조하고 싶어진다. 즉 伊藤의 관찰보다 崔의 것이 훨씬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다음의 추리가 뒤따를 때 더 확실해진다고 본다.

기성집단은 바로 그 집단적 속성에 의해 부락내·외에 많은 이해가 걸려 있고, 자신들의 지위

와 계집단 참여를 포함한 인간관계의 網에 있어서 기득권자의 위치에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타지인들의 전입이나 그들의 부락내 영역확장 따위의 한계집단적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은 하나의 위협으로 인지되기 쉽고, 그에 대한 방어와 통제를 가하려는 욕구가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방어와 통제의 욕구는 한계집단적 사람들로 인해 부락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분위기가 흐려진다는 인식으로 반영되고, 이런 인식의 延長이 기성집단의 사람들로 하여금 소속부락의 전체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 뿐더러, 자신들의 關係網으로 부터 그들을 배제하게끔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기성집단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계집단 참여도는 높는데 부락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낮은 지역사회평가수준-인 경향을 띠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계집단의 사람들은 그 집단의 속성에 의해 부락내에서의 지위가 불안정하고, 인간관계의 網도 취약한데다 계집단 참여에 있어서도 기성집단의 배척을 받기 쉽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소속부락에서의 同化(assimilation)와 적응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이들은 부락에 대한 평가와 같은 민감한 질문에 응답하려면, 주변 부락민들(특히 기성집단)의 통제나 제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견해를 솔직히 나타내기 보다 되도록 제재를 받지 않는 쪽으로 표현하고자 애쓰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락을 좋게 여기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든 될 수 있는한 좋다는 방향으로 답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한계집단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계집단 참여도는 낮은 반면 소속부락을 긍정적으로 평가-높은 지역사회평가수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³³⁾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부락민의 범주화가 그대로 계집단 참여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그런 까닭에 계집단 참여 자체는 부락성원들간의 사회적 경계의 의미를 지니고, 부락민들을 특정 범주에 따라 분리시킴을 뜻한다는 데 별 의의가 없게 된다. 그리고 계집단 참여도와 지역사회평가수준간에 나타나는 逆關係의 문제도 나름대로 내포된 의미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상의 추리를 통해 우리는 伊藤의 관찰보다 崔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더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VI.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나름의 한계 안에서 제주도 중산간 부락민의 계집단 참여와 사회적 유대에 관한 논의와 분석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참여와 유대의 문제에 서로 대조되는 두 견해를 검토하고 어느 편이 더 지지할만한가를 따져 보았다.

두 견해란, 각각 伊藤亞人和 崔恩英의 연구에서 구해지는 것들로, ① 계집단 참여가 활발할수

33) 한계 집단적인 사람들의 지역사회평가척도에 대한 응답은 본래의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것이라는 데서 體系的 誤差(systematic error)의 개입가능성을 도외시하지 못한다. cf. 李相哲, "면접 표본 조사의 실제과정: '대외관계' 조사의 예", 「社會科學과 政策研究」7卷2號, 1985. 10. pp. 213~233.

록 부락내 사회적 유대가 높을 것이라는 주장과, ② 계집단 참여 자체는 일종의 사회적 경계와 분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 계집단 참여와 부락내 사회적 유대의 문제는 각 부락의 생태학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풀이가 가능했다. 본 연구의 대상 부락들이 갖춘 그런 특징들이 참여와 유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의 결과는 위 ①의 견해에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의 주제로 보면 부수적인 사항일 수 있지만, 제주도 중산간 부락의 공동목장이 부락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회학적 의미를 갖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공동목장이 애초부터 지녔던 것이라기 보다 뒤에 일어난 소유권의 모순된 이중성과 투기의 대상화가 가져온 효과로서의 갈등의 場이라는 것이었다.

ii) 부락민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계집단 참여와 부락내 사회적 유대의 문제와 매우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본 연구는 그런 배경에 따라 부락민들을 '기성의 집단'과 '한계적 집단'으로 범주화해 보았다. 그랬더니 전자는 계집단 참여도가 높은 반면 낮은 지역사회평가수준-약한 사회적 유대-을 보이고 후자는 참여도는 낮으나 높은 지역사회평가수준-강한 사회적 유대-을 나타냄으로써 위 ①의 주장에 대한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iii) 한계-기성 두 집단의 속성과 ii)의 참여도와 평가수준간의 역관계를 관련시켜본 결과, ①의 주장은 더 이상 지지하기 힘들며 ②의 의견이 타당성이 높음을 알게 되었다. 즉 한계-기성의 두 집단으로의 범주화가 계집단 참여자체에 반영되며, 그런 까닭에 계집단 참여자체는 부락민들간의 사회적 경계와 사회적 분리를 함축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 정리된 본 연구의 결과는, 서두에서 밝힌 제약으로 인해 결정적인 것은 아닐지 모르나, '우연적 발견'에 의한 하나의 문제 제기로서의 역할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는 것을 아울러 강조해 둔다.

Summary

Participation in *Kye*-Group and Social Solidarity of Semi-Hilly Villagers in *Cheju* Island

Kim Suk-joon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two contrasting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Kye*-group and social solidarity, based on a social survey in semi-hilly villages on *Cheju* island. One argument is that the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Kye*-group, the more strong social solidarity in a village. The other is that the participation in *Kye*-group in itself seems to be a kind of social boundary and segreg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characteristics of each village such as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may be included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Kye*-group and social solidarity. The result shows the possibility of rejecting the hypothesis that the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Kye*-group, the more strong social solidarity.

2) Villager's socioeconomic background is related to not only the participation in *Kye*-group, but also the community evaluation. According to socioeconomic background, villagers can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such as 'established' and 'marginal'. Comparing two groups, the established group shows the high score in participation and the low score in community evaluation scale, namely, weak social solidarity, while the marginal group shows *vice versa*. This result also shows the possibility of rejecting the above hypothesis.

3)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stablished and marginal groups and the negative correlation of participation and community evaluation, the author is able to support the other argument between two contrasting views on participation and social solidarity.

In conclusion, the categorization of established and marginal groups is meaningfully revealed i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in *Kye*-group, therefore, the participation in *Kye*-group in itself implies social segregation among villagers and operates as a social boundary.